

“화북천 옛물길은 복원되어야 합니다”

- 화북천 옛물길 복원을 위한 제주도의회 청원 -

곤울동 마을은 예로부터 '물이 많은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용천수가 사시사철 화북천 하류에서 나왔고, 제주 4·3 때 이를 식수로 사용한 기록이 있는 '제주 4·3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물(지하수, 용천수)이 많은 지역이지만, 곤울동 마을은 수해 피해가 없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1992년 전후 화북천의 '분류' 1개 하천이 매립되며 수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화북천은 2개의 하천이 바다와 맞닿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우(혹은 폭우) 시 2개 하천을 통해 산간에서 내려오는 물이 바다로 흘렀기에, 하천범람 등 수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인데요. 그러나 1992년경 화북천 하류 중 1개 하천 위치에 중계펌프장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이때 사업 부지는 하천 하류를 매립해 확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화북천 하류 중 1개 하천 일부를 매립한 사실은 행정(제주도) 또한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하천 매립 공사로 인해 화북천의 본류의 물길이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공사가 완료된 1992~3년 이후 크고 작은 수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태풍 '나리' 때 대형 사고(수해) 발생해 원명사 인근 및 곤울동 하류 화북일동 4407번지 일원 부근이 물이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인근에 있던 빌라는 홍수 피해가 심각해 철거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태풍 혹은 폭우 시 화북천 하류가 범람하는 현상은 빈번하게 벌어지는 있으며, 심지어 바다가 만조가 아닌 간조임에도 하천이 범람하는 상황입니다. 매립된 하천으로 인해 하천 하류 바닷가 부근에는 퇴적물이 쌓여 악취가 심합니다. 지역주민이 수차례 고통을 호소해 왔으나 행정은 수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수해와 오염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하천 불법매립 의혹, 거짓으로 점철된 간이하수처리시설 공사 갈등. 이런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를 다시 열어 옛물길로 복원함으로써 현재보다 원활한 하천 흐름을 되찾아 화북천 하류지역에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옛물길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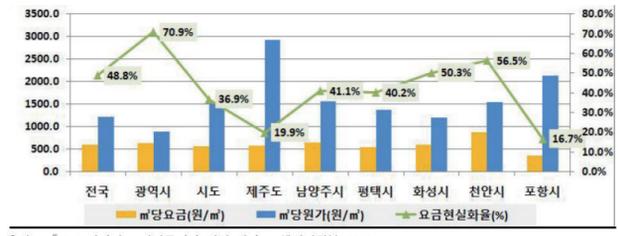


기수갈고동, 하천유 중계펌프장, 불법매립 의혹, 1992년 화북중계펌프장을 만들면서 매립 화북천 동쪽 물길, 이후 지속적인 수해 주민 삶을 위협하는 빈번한 옛물길은 복원되어야 합니다, 화북천 옛물길 복원을 위한 제주도의회 청원, 주민들을 위협할까봐 만드는 대책위원회

제주도의 명분없는 상하수도요금 인상안

- 행정 무능을 도민에게 전가하는 철면피 행정의 민낯 -

"맛이 없으면 공짜"라고 걸어놓고 장사하는 음식점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효과가 전혀 없는 상황이면, 일말의 죄책감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주도정은 상수도 우수율(상수도 생산량 대비 사용처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358억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우수율을 45.7%에서 55%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었지만, 2019년 우수율은 45.1%로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는 어떨까요? 수조원에 달하는 재정투여와 BTL 사업을 통해 우수관과 오수관을 분리하는 정비사업을 하였지만, 여전히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우수와 오수가 섞여 들어와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방류되고 있는 것이 제주의 현실입니다.



출처 : 「2019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 행정안전부, 20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본부는 제주도의회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은 현재 대비 2025년 상수도는 136%, 하수도는 221% 였는데요. 제주도정이 이처럼 무리한 인상율을 반영해 통과시키려 하는 논리는 '제주도 생산원가가 높으니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민이 내는 요금은 전국 평균과 같습니다. 그러면 왜 제주도만 유독 하수도 생산원가가 높은 것일까요? 상하수도본부가 제출한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 (2020.09)' 에는 그 이유에 대한 어떠한 분석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높은 생산원가에 대한 타당한 이유제시 없이 제주도민에게 무조건 '생산원가가 높으니 요금을 더 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상황은 상수도 요금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제주도는 상수도의 대부분을 지하수에 의존합니다. 다른 지역은 강물을 정화해서 사용하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제주의 경우, 당연히 생산원가가 낮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주도의 상수도 생산원가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물이 상수원에서 집까지 도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우수율이 47.1%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평균 우수율이 2019년 현재 85.2%임을 감안한다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행정이 그동안 방치해서 관으로 줄줄 세고 있는 물까지 제주도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해 요금을 매기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다른 재정적 낭비를 일삼으면서도, 스스로의 무능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비용 상승을 제주도민에게 전가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입니다. 제주도민에게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 후, 상·하수도 요금을 더 내라고 해야 하진 못한 채, 왜 제주도민은 세금을 내어 행정이 돈을 쓰도록 하고, 행정의 무능에 대한 대가로 요금을 더 내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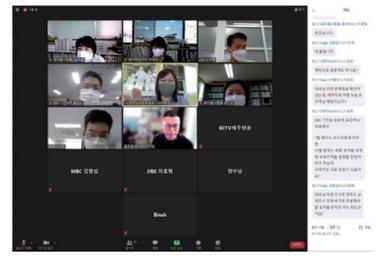
활동이모저모

- 7월 7월 1일 7월/8월 소식지 기획회의
- 7월 6일 [오름을 부탁해] 따라비오름 답사
- 7월 7일 제2공항 반대 도민결정 사수 결의대회(제주도청)
- 7월 13일 제2공항 부동의 촉구 상경 결의대회(세종정부청사)
- 7월 19일 [자연휴식년제를 모니터링] 용늪이오름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 7월 20일 [훼손오름 모니터링] 새별오름 7-8월 소식지 발송
- 7월 21일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제주바다를 위한 시민행동] 동부지역 해안 모니터링
- 7월 22일 [인터뷰] 오유정 텍사스오스틴대학 교수 내방 (제주개발 관련 인터뷰)
- 7월 26일 [인터뷰] 대정해상풍력 관련 서울대 환경대학원 학생 내방 [인터뷰] 용담 용천수 사업 관련 뉴스타파 동행취재
- 7월 27일 [기자회견] 화북천 간이하수처리시설 공사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제출(도의회 의장)
- 7월 28일 [고발인조사] 화북중계펌프장 하천법 및 횡령 관련 고발인조사(동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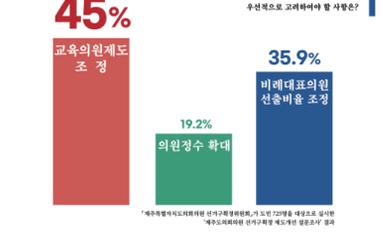
구내비 제2공항(7.13)

상식적인 결정, 그 마침표를 위해!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정을 앞두고, 제2공항 반대의 마을이 전국 각지에서 세중에 모였습니다. 우리단체 회원들과 활동가들도 환경부 앞에서 힘차게 제2공항 '부동의'를 외쳤는데요. 환경부는 제2공항 사업에 반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들의 서식지 보전방안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오류, 맹종위(열중위기아생생물 2급)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 미제시, 조사된 순굴(160개)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를 그 이유로 밝혔는데요.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은 없어야 합니다. 도민의 뜻과 환경부의 결정을 존중해 국토부는 하루빨리 제2공항 사업 백지화를 선언해야 합니다!



꽃자왈을 지켜라! (8.18)

꽃자왈 없는 제주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제주의 허파이자 생물종 다양성의 보고, 지하수 함양의 원천. 이런 꽃자왈을 지켜내겠다는 목적을 품은 제주도의 '꽃자왈 경계 및 보호지역(안)'이 무려 6년 만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고민한 용역의 결론은 다소 실망스러웠는데요. 멸종 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등 보호종이 있는 곳과 국도유지 꽃자왈이 '꽃자왈 보호지역'에서 제외되어 개발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종의 전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용역이라요. 이러한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회견과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거구획정위 존재이유를 묻는다(8.19)

도민 여론은 단지 '참고용'일 뿐이었던 걸까요? 도민 80%

이상이 도의원 증원에 공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주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조정 문제를 결국 도의원 정수 확대라는 카드로 해결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민다수가 선택(45%)한 교육의원제도 조정 등 다양한 선택지는 강그리 무시된 셈입니다. 각종 논란을 의식해 이런 식으로 증원만 반복한다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과연 존재의 이유가 있는 걸까요? 도민도 공감하지 않는 이러한 선거구획정의 결론으로, 국회 설득은 가능한 걸까요? 제주도 선거구 획정의 앞날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화북천 간이하수처리장 공사, 중단하세요!" 화북천 기자회견 및 진정서 전달(7.27)

불법 매립 의혹, 주민 반발 등 각종 문제와 갈등으로 얼룩진 화북천 간이하수처리시설 공사.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상하수도본부 측이 허위로 주민 동의를 받은 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간이하수처리시설 설치하면서 주민들에게는 이를 빗물에 담배꽂음 등 단순 불순물을 갈라내는 초기수처리시설이라 속여 동의를 얻으려 하였습니다. 이에 공사중단을 촉구하는 주민 915명의 뜻을 제주도의회 최남수 의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모니터링] 드림타워 친수방류지점(출천) 답사(8.3, 8.11)

드림타워, 약속은 잘 지키고 있는 걸까요? 우리단체는 드림타워 개장 이후, 드림타워가 자체처리하여 하천(출천)으로 흘러보내고 있는 방류수를 모니터링해 오고 있습니다. 8월에도 진행된 모니터링.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추가철인 8월에 출천 방류관에서는 자체처리한 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처리 대신 포화상태인 도두수처리장으로 하수를 보내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을 품으며, 드림타워 하수와 친수방류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브레이크 더 드림팀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쪽~



[한라생태길라잡이] 밧줄 매듭법 역량강화 교육(7.25)

우리 길라잡이 쌤들의 배움의 열정을 멈추지 않아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지 못한 한라생태학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길라잡이 쌤들이 한남리머제맞춤에 모였습니다. 함께 밧줄 매듭법 배우고, 트리클라이밍 체험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밧줄에 몸을 맡긴 채, 하늘을 날아 본 우리 길라잡이 쌤들! 하루빨리 코로나 19 상황이 종식되어 쌤들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밧줄체험을 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시다.+



[생태문화해설가모임 올레] 휴식년오름 모니터링: 용늪이 오름(7.19)

급격한 탐방객 증가에 따른 훼손으로 올해부터 휴식년에 들어간 용늪이 오름. 우리단체 올레 쌤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용늪이 오름 모니터링을 통해 오름의 상태를 살피고, 보존방안을 고민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계신데요. 7월의 용늪이 오름은 탐방로 양쪽으로 풀이 많이 자라고 있는 상태로, 훼손을 막기 위해 설치한 휴즈머(복구마대) 위에는 풀이 하나 둘 자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출입이 통제되었는데도, 여전히 몰래와서 탐방한 탐방객들의 흔적도 확인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모두, 용늪이 오름의 휴식을 지켜주세요~



[오름을 부탁해] 오름탐방 가이드라인 제작을 위한 자문회의(8.10)

오름에서 '탐방로를 벗어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탐방객들이 있습니다. 육지와는 달리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오름은 구멍이 송송 뚫린 화산승이 이루어져 있어, 사람의 발길에 쉽게 훼손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단체는 올 한 해 동안 오름탐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오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10일에는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보다, 휴식년제와 탐방객 분산 등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쌤들의 의견을 들으며, 오름보전을 위해 우리가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회의였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 없는 바다를 위한 시민행동(8.5,8.29)

지난 8월 12일 방영된 「KBS 환경스페셜, 지금 바다는, 편을 보셨나요? 방송에 나온 해양 플라스틱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집어들린 생선 배에선 플라스틱병이 나오고, 갯벌갈래는 스티로폼을 삼키고, 조개껍데기엔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는 지금 바다의 현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스티로폼 부표와 페어구들입니다. 스티로폼의 경우 알갱이로 부서져 수가도 힘든 데다, 그만큼 작은 해양 생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바다 쓰레기 중에서도 스티로폼 부표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우리 길라잡이 쌤들은 더위에 이랑곳없이 제주도 해안을 돌면서 스티로폼 부표가 밀려오는 지점들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